

‘돌의 마을 · 아지초’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토 내해의 따뜻한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입은 반도입니다. 돌을 깎아내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리는 시코쿠 지방 본토 최북단에 있는 돌의 마을 아지초입니다. 최고급 화강암인 ‘아지 돌’ 이 채석되기 때문에 예부터 석재 가공업이 모여 있어 일본 3대 석재산지의 한 곳으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아지 돌’ 은 일본 3대 화강암의 하나. 화강암은 세립질, 중립질, 조립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지 돌은 세립질과 중립질로 분류됩니다. 섬세한 모양의 세립질일수록 귀중품으로 여겨지며, 연마하면 할수록 광택이 더욱 더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강암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울 만큼 아름다우며, 200년은 변색되거나 광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품질의 우수함으로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석재입니다.

또한, 아지초는 어업이 활기찬 마을입니다. 어패류의 보고인 세토 내해의 어획량과 생산액은가가와현내 어선어업 중에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업과 석재업은 지금도 마을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2대 산업입니다.

더욱이 겐페이 전투의 무대였던 ‘아시마산’ 이 가깝게 보이며, 헤이케 군단의 군선 집결장 ‘후카카쿠시’ 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적이 남아있어 역사의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의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가가와현 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지 돌’ 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특징 있는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킨 아지초에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가족동반은 물론 연인끼리도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순애의 성지 아지 관광 교류관

우편번호 761-013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아지초 5824-4
TEL · FAX 087-871-1700

다카마쓰시 아지 지소 (시설에 관하여)

우편번호 761-018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아지초 6393-5
TEL 087-871-3111 FAX 087-871-3115
<http://www.city.takamatsu.kagawa.jp/3638.html>

다카마쓰시 국제문화진흥과 (작품에 관하여)

우편번호 760-857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반초 1초메 8번 15호
TEL 087-839-2636 FAX 087-839-2015
<http://www.city.takamatsu.kagawa.jp/642.html>

다카마쓰 시립 시로바나 공원 (시설에 관하여)

우편번호 761-013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아지초 신카이 6392-91

다카마쓰시 국제문화진흥과 (작품에 관하여)

우편번호 760-857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반초 1초메 8번 15호
TEL 087-839-2636 FAX 087-839-2015
<http://www.city.takamatsu.kagawa.jp/642.html>

아지 · 무레 · 아시마

ART VILLAGE

순애의 성지 아지 관광 교류관

다카마쓰시 아지 지소

다카마쓰 시립 시로바나 공원



소중한 사람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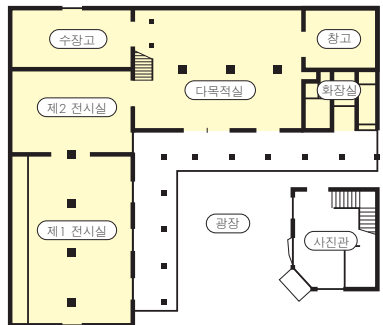
아지초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시설입니다. 아지초 출신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에서 사용된 촬영 세트 '아마다이라 사진관' 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2009년 6월에 아지초의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소도 함께 세워져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특산물 전시·판매 코너

카페 코너

관내에는 현지생산의 해산물을 비롯하여 다카마쓰시의 자매도시 프랑스 투르시의 물건과 그 고장의 도예작가가 손수 제작한 작품 등의 판매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지초만의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기 장소입니다. 또한, 아지 돌을 사용한 석조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실 등도 있습니다.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의 세트장으로 사용된 '아마다이라 사진관' 을 복원한 관내에는 카페로 새롭게 꾸며지며, 아지 돌로 만든 맷돌로 간 커피 등을 맛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좌석은 사진관 1, 2층에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을 합쳐 28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사인 색지 등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영화의 여운에 잠기면서 카페 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지초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1996년 봄에 완성된 다카마쓰시 아지 지소입니다. 제47회 예술선장(芸術選奨) 신인상을 수상한 건축가 무라카미 도루가 설계하였습니다. 아지초에서 산출된 석재와 유리를 사용한 개성적인 건물에서는 야시마산과 고켄잔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친근감이 있고 여유있는 공간은 현지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아지초 출신의 조각가이면서 화가 사에구사 소타로의 작품 807점과 서예가 히로세 후미의 작품 103점을 남동 2층 상설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와현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아지초의 문화와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에구사 소타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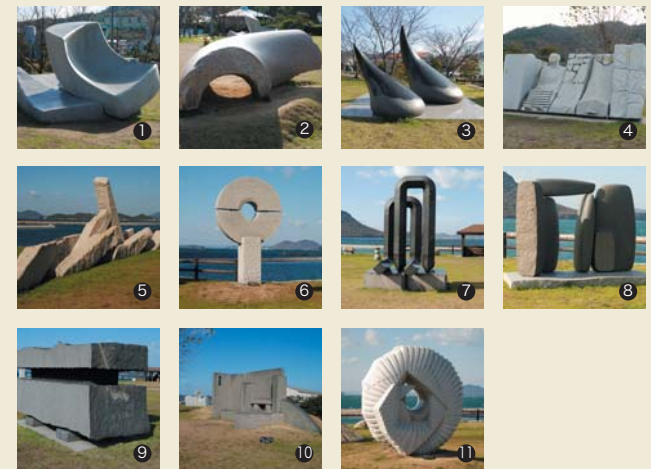
히로세 후미 작품

자연과 평온함을 찾는 인기 명소

온화한 세토 내해를 끼고 있으며, 서쪽을 바라보면 야시마산이 보이는 풍요로운 자연의 바닷가 공원입니다. 이곳으로 이어지는 '야스라기 노미치' 는 시내 도로변에 정비된 녹도공원입니다. 공원내에는 '순애로드' 가 있어 사랑의 성지 아지초를 상징합니다. 또한, 아지 돌의 산지답게 곳곳에 있는 석조각 작품도 감상의 즐거움을 줍니다.



공원내에는 석조각 쿵쿠르 입상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펼쳐지는 세토 내해를 배경으로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각한 작품을 바라보는 한 때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어업이 활기찬 마을이기 때문에 실물 어선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개성적입니다. 놀이기구로 개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타석에 실제로 앉아서 키를 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 ① 「순풍」 곤도 다카시
- ② 「모두 볼 수 없었던 그대로…」 사지 마사히로
- ③ 「드디어 사랑의 바람이 불어온다」 시부야 요시아키
- ④ 「바다를 항해서(바람이 되고 싶은 침묵), 스키 다케우에몬
- ⑤ 「유석(遺石) 1억만년의 바다 밑에서」 데라다 다케히로
- ⑥ 「SUN DISC」 Robert Sindorf
- ⑦ 「합장」 이토 마사토
- ⑧ 「공간의 기억」 다케우치 도시히로
- ⑨ 「돌이란」 미야지 유타카
- ⑩ 「고적의 향(香)」 최소동
- ⑪ 「태음역 No.3」 이와사키 고노스케